

광주 교통·집회 문화 확 달라졌다

올 교통사고 사망자 15% 줄어
집회 99%가 비폭력·평화시위
5대 범죄 줄고 검거율은 급증

광주시민의 교통문화와 집회·시위 문화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시민 주축의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교통문화지수가 향상되고 불법집회가 주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비폭력·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5대 범죄 검거율이 지난해보다 14%가량 증가하는 등 치안상 태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30일 현재 광주지역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8명에 비해 19명(14.8%)이 줄었다. 이 같은 감소율은

서울 등 전국 7대 도시 중 1위로 올해 사망사고 줄이기 운동 목표인 9.7%보다 5.1%P 높은 수치다.

경찰은 지난 1월 1일부터 이날 현재까지 음주운전과 이륜차 난폭운전, 보행자 무단횡단 등을 중점 단속했다. 이 기간 총·퇴근시간대를 포함한 상시 음주운전 적발과 이륜차, 보행자 위법행위 단속에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 경력을 총 동원했다.

특히 교통 무질서 추방 범시민 선포식을 시작으로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출범, 어르신 교통안전학교 개설, 노인정 출장 안전교육,

교통신호기 등 안전시설 보장, 사고 다발지역 등 교통환경 개선 등 교통질서 의식 향상과 시설물 개선사업을 펼쳤다.

집회·시위문화도 바뀌고 있다. 올해 광주에서 개최된 집회 중 불법시위는 단 3건(도로 점거 2건, 투석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99%는 모두 평화적인 집회였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집회를 갖기 전 경찰과 평화시위를 약속하는 협약(MOU) 체결 비율도 98.7%에 달해 지난해 90.5%보다 상승했다.

경찰이 민생침해 범죄 척결을 위한 서민생활 보호활동을 하면서 치안상 태도 많이 나아졌다.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 발생률은 줄어든 반면 검거율은 향상된 것이다. 5대 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1만8천3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8천452건 보다 91건(0.5%) 줄었다. 반

면 검거건수는 1만3천9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천941건 보다 2천51건(14%) 늘었다.

절도 검거율은 5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8%보다 무려 22.0%P 증가했고, 강도도 88.1%로 2.3%P 늘었다. 경찰이 범죄 취약지구 대상 방범 협업체를 구성하고 방범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6개 파출소 신설 및 치안센터 전담경찰관 배치 등 주민 밀착형 치안정책을 펴온 덕분으로 풀이된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은 물론 각 관련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로 이해하고 양보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선진 교통질서 확립과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조성, 안정적인 치안상태를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한나의 하루’ 대상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
2009 인권 영상 공모전

‘2009 인권영상공모전’에서 노동주씨의 ‘한나의 하루’가 대상인 ‘인권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소장 이정강)는 2일 올해 인권영상 공모 결과 총 31편의 출품작 가운데 ‘인권상’을 비롯, 19편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일반부 최우수상은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 김영순씨의 ‘특별하지 않은 사람 박종태’가 선정됐고, 우수상 4편, 장려상 13편 등이 수상작으로 뽑혔다. 대상작과 최우수상, 우수상 등 6편은 DVD로 제작돼, 인권교육 및 방송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된다.

시상식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인 오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최경호기자 ch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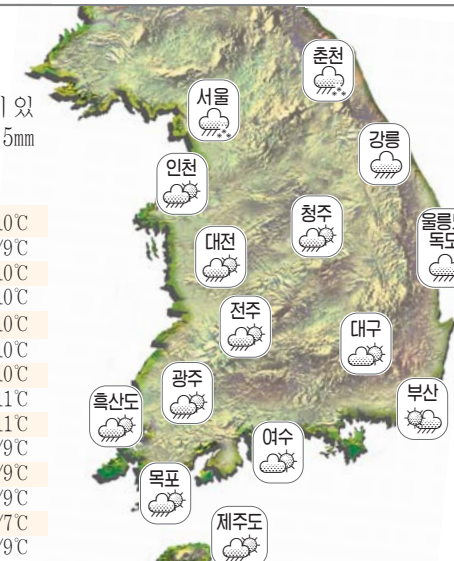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4분
해지기 17시 20분

달뜨기 18시 06분
달지기 08시 18분

겨울 재촉하는 비

오전에 비가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



광주	비온뒤 갠	4/10℃
목포	비온뒤 갠	5/9℃
여수	흐린뒤 맑음	7/10℃
완도	흐림	5/10℃
구례	흐림	1/10℃
남원	비온뒤 갠	3/10℃
장흥	흐림	3/10℃
고흥	흐린뒤 맑음	4/11℃
순천	흐린뒤 맑음	4/11℃
영광	비온뒤 갠	3/9℃
진도	비온뒤 갠	5/9℃
전주	비온뒤 갠	3/9℃
남원	흐림	0/7℃
목포	비온뒤 갠	8/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제강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관심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목포	02:10	07:30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0m	여수	09:44	03:05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21:45	15:49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씨						
최저/최고	1/13	4/9	0/11	1/13	2/13	4/10



서구 폐기물 민간위탁 철회 촉구

“S환경, 보조금 받고도 매립·소각장 보내”

민주노총 광주본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일 광주시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구청은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업 무의 민간위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광주본부는 “재활용품·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S환경은 지난 9년간 매년 7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재활용품을 매립장이나 소각장으로 보냈다”며 “현 S환경의 대표는 당시 민간위탁을 추진했던 서구 사회산업국장으로 서구청이 보조금을 통해

책정한 인건비로 초단기계약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등 노동착취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본부는 또 “12월 말이면 서구청과 S환경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만료되는데,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역 관리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철저한 현장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구는 2001년 S환경에 재활용품 및 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했으며, 최근 일부 서구의회 의원들이 S환경의 업무처리, 근로환경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

“외제차 탄 남자 접근 조심”

40대, 여대생 피어 전기충격기 위험 성폭행

고급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심야에 귀가하는 여대생을 피어 차에 태운 뒤 전자충격기로 위협, 성폭행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은 2일 양모(41)씨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3일 새벽 1시40분께 광주 광산구 본량동 모 저수지에서 A(여·21)씨를 전자충격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양씨는 귀가하던 A씨에게 접근, “보증을 서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주면 사례금으로 300만원을 주겠다”고 차량 안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1월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 뒤늦게 잡힌 바 있다.

하지만 양씨는 “전자충격기로 위협한 적은 없으며, 성관계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119구급대원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벌금형

119구급대원들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119구급대원들이 활동 중에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폭행사건의 가해자들이 이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이를위해 구급차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대원들에게 녹음장치를 소지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연휴뉴스

광산구 일가족 사망 사건

남편이 목졸라 살해 뒤 자살

광주광산경찰은 지난 1일 광산구 L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양모(38)씨 일가족 4명을 부검한 결과, 부인(38)·아들(16)·딸(11) 모두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부검결과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부인의 불륜을

의심해 처자식을 살해한 뒤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된 양씨는 부검결과 자살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이렇다할 반항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미뤄 양씨가 이들에게 독물이나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컵 8개에 대한 조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개관 5주년 기념 고객 사은 大축제

★ 행사기간 : 12월 2, 28일

객실 ₩110,000

레스토랑 10+5% 할인 이벤트

고객 사은 축제 이벤트 : 식사비 50%까지 최대 2000원, 그리고 Happy New Year Party : 노래방 프로그램 및 뷔페까지 최대 50% 할인

★ 상단 및 문외 TMI : 02-226-0060

3명 이상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자녀 행복카드제"

전라남도에서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경감을 위해 다양한 문화·경제적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농협에서 다자녀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nhanagoy.bccnri.com, 콜센터 1520-386-5851)



